



KC뉴스레터
QR코드를 찍어주세요

KC Newsletter vol.22



Networks

[KC코트렐] 대한상의 한중 녹색경제협력 포럼 박의원 전무 참석

[KC코트렐] 제4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 참가

[KC환경서비스] 제16회 환경의 날 표창장

[안성유리] 제23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모범근로자상 수상

[안성유리] 기술연구소 상해 국제 유리 공업 기술박람회(CHINA GLASS) 참관

[KC한미산업] “무재해 운동(3배수)” 목표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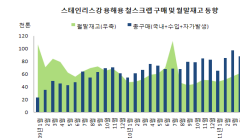


Customers

[제철소식]
포스코 건설-광양 4열연공장 신설 해외철강단신

Economic Trend

환율- 그리스 위기 등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원/달러 1100원 상향 돌파 시도 전망, 다만 쉽지는 않을 듯



원자재-국산 유통용 열연 재고 급증 외

KC Edition

Leaving Hsinta!
-대만, 신따프로젝트를 마치며...



제3차 Asia Solar Energy Forum 참석 후기
-KC Solar Energy 강태일 상무

MINNESOTA 정착기
NOL-TEC 파견근무자, 김재수 선임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코트렐] 대한상의 한중 녹색경제협력 포럼
박승원 전무 참석

KC코트렐 박승원 전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가 지난 4월 20일 중국 장쑤성(江蘇省) 우시(無錫) 후빈호텔(湖濱酒店)에서 개최한 '제3회 한중 녹색경제협력포럼'에서 '탈질 촉매 제재 조 사업'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이태영 사장님을 비롯하여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용천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박근태 주중한국상회 회장, 김상열 OCI 부 회장, 권문식 케피코 사장 등 한국측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완지페이(萬季飛)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쉬밍(徐鳴) 강소성 부성장, 쑹야오밍(宋耀明) 상무부 아주국 부국장, 주민(朱民) 우시 상무청장, 마오 쇼핑(毛小平) 우시 당서기, 시에샤오난(謝曉南) 썬텍(Suntech) 고급부총재, 왕루바오(王祿寶) 강소환타이그룹 동사장(회장), 장시페이(蔣錫培) 원동그룹 동사국 주석(회장) 등 중국 기업인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녹색기술과 친환경제품을 남보다 앞서 개발하는 기업들이 향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녹색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과 중국 간 협력강화는 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실제 한·중 협력사업 추진 중 겪었던 애로사항과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번까지 세 번의 포럼을 거치면서 녹색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가 늘고 서로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면서 "향후 양국 간 녹색산업 협력이 단기적 관점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구체적 성과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고 말했습니다.



▶ 발표장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코트렐] 제4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 참가

KC Cottrell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아래와 같이 “국제 자원 순환전”에 아래와 같이 참가하였습니다.

- ▷ 명칭 : Re-Tech 2011 국제 자원 순환산업전
- ▷ 장소 : KINTEX, Hall 5
- ▷ 주최 : 지식경제부
- ▷ 주관 :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국가 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자원순환 단체연대회의

이번 전시는 녹색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부합되는 주제답게 다양한 산업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8일에 진행된 자원 순환 컨퍼런스는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자원 순환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종 자원 순환 기술개발 성과 등이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동시통역되어 발표 되었으며, 300여 석의 좌석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KC Cottrell은 동서발전과 공동 개발한 배가스 탈질 설비 촉매와 석유 화학 공정의 탈황촉매 재제조 기술을 주제로 전시를 하였으며, 촉매 재활용, 석유화학 부문, 환경 부문의 업계에서 주로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KC Cottrell이 새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 화학 부문의 탈황 촉매 재제조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독보적 자체 기술로써 관련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본 전시회 출품은 기술연구소 주관 하에 이루어졌으며, KC환경 서비스의 촉매 재제조팀과 한서대학교 촉매공정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KC코트렐 기술연구소 홍정희 팀장
(jhhong@kc-cottrell.com)



▶ 전시회장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환경서비스] 제16회 환경의 날 표창장 수상

KC환경서비스는 지난 6월2일 제16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김충석 여주시장으로부터 환경친화경영에 대한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표창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환경전문업체로서의 네트워크 구축
2. 환경관련법규 준수의식 고취
3. 비위생 매립장 복원 및 악취안정화에 기여
4. 폐자원의 재활용에 기여
5. 사회공헌
6. 지역봉사활동

표창장은 이찬성 운영팀장이 대표로 수상했습니다.

KC환경서비스 관리팀장 이 정식
(jslee@kc-enviro.com)



▶ 이찬성 운영팀장
대표 수상

[안성유리] 제23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모범근로자상 수상

임호민 과장

지난 5월 18일 제23회 전국중소기업인대회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 중소기업인 및 모범 근로자의 포상 수여식에서 안성유리 경영지원팀 임호민 과장이 중소기업 모범 근로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임호민 과장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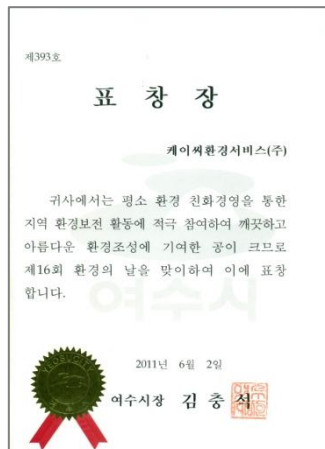


▶ 중소기업인
대회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 이봉형팀장,
임호민과장,
박인환과장

안성유리공업(주) 경영지원팀 박인환 과장
(ihpark@asglass.co.kr)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안성유리] 기술연구소 상해 국제 유리 공업 기술박람회(CHINA GLASS) 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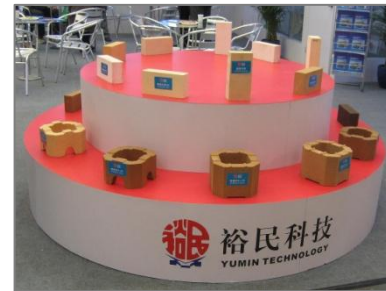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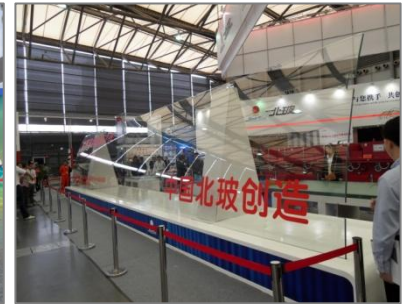
안성유리 기술연구소는 지난 5월11일부터 1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유리공업 기술박람회를 참관 하였습니다.

올해 전시회는 55,000m² 규모의 전시장에서 900여 업체가 참가하고 약 40,000여명이 참관하는 등 아시아 최대규모로 개최되어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 유리산업의 발전상과 세계 유리산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정부지원 과제인 「2010년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에너지소비산업인 유리업계의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방지 및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참관을 통하여 안성유리가 지속적인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개발, 새로운 아이템의 발굴 등에 노력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성유리공업(주) 기술연구소 황태선 과장
(tshwang@asglass.co.kr)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1. 박람회장에서 연구소팀원들
2. 엄청난 두께와 크기의 판유리,
3. 착색제를 이용한 유리들, 4. 중국 YUMIN社의 내화재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한미산업] “무재해 운동(3배수)” 목표달성

KC한미산업은 2008년 8월 20일부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재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지난해 2010년 5월 21일 무재해 2배수 목표를 달성하였고 금년 2011년 4월 06일 무재해 3배수(960일)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기존공장 가동을 증대 및 폐수 처리 신규 공장 증설과 더불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직원 모두가 혼연일치(渾然一致)가 되어 이뤄낸 성과입니다.

무재해 3배수 공로로 “한국산업안전공단” 표창(대외)에는 운영팀 문성호 대리, 대표이사 표창(대내)에는 기술영업팀 김수선 기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도전, 무재해 4배수(113,845시간)를 향해 4월 월례회의를 마치며 전 사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파이팅! 을 외치면서 무한 질주를 다짐하였습니다.

KC한미산업 최성관 차장
(sgchoi@kc-enviro.com)

제 2011000505 호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서

사업장명 : KC한미산업(주)
대표자 : 이장록
무재해기간 : 2008.08.20 부터
2011.04.06 까지
무재해시간(일수) : 960일
달성배수 : 3배

위 사업장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한 결과 위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인증 합니다.

2011 년 04월 2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사



▶ 인증서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제철소식]

포스코 건설-광양 4열연공장 신설

국내 최초 순수 자체기술로 건설
9월 착공... 2014년 1월 준공 예정

포스코건설(사장 정동화)이 순수 자체 기술력만으로 광양 4열연공장을 짓는다. 이는 국내 제철플랜트 건설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해외 전문업체에 의존하던 전로·연주기·압연기 등 핵심설비를 비롯해 자체 기술력으로 제강·연주·열연에 이르는 전 라인(line)을 국산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패밀리와 함께 버추얼추진반을 구성하고 5월 23일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포스코건설은 설계단계부터 발주관리, 예산관리, 공사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낭비요인을 없애고 소통 채널을 일원화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기 준수·공사품질·공사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광양 4열연공장 건설을 통해 제품 경쟁력 향상은 물론 핵심설비인 제강·연주·열연설비의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세계 제철플랜트 건설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공사는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가 2014년 1월 준공 예정이다.

▷ 포스코 신문(5/26, 제870호)

해외 철강 단신

신장지역에 연산 300만톤 규모 일관제철소 건립 추진

산둥강철은 신장지역 남부에 연간 생산능력 3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일관 제철소 건설을 위한 전기·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 준비는 이달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1단계로 2012년까지 100만 톤 규모의 철강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 제철소가 완공되면 산둥강철은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사업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등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사마르코 제4펠릿공장 건설 최종승인

브라질 광산업체이자 펠릿 생산업체인 사마르코는 이스피리투산투주 남부 안치에타시에 제4펠릿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사마르코는 BHP 빌리턴과 발레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사는 이번 증설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신설될 제4펠릿공장은 연내 착공해 2014년 2분기에 가동할 계획이며, 연간 생산능력은 800만 톤 수준이다. 총 투자 규모는 35억 달러이며, 신공장이 가동되는 2014년 사마르코의 연간 생산능력은 총 30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토네이도 영향으로 미국 일부 철강업체 생산 차질

4월 27일 앨라배마와 미시시피주 등 미국 중남부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아치면서 일부 철강 관련업체에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북미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클리프스 내추럴 리소시스(Cliffs Natural Resources)의 **오크 그로브(Oak Grove)**광산에서 벨트 컨베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고 가동을 중단했고, 터스컬루사에 위치한 **뉴코어**의 후판 공장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시시피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세베르스탈(Severstal)**의 전기로와 열연공장은 전기공급 차질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며 일부 소둔공정과 산세공정은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지진 피해따라 2분기 자동차 생산 대폭감소 전망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올 2분기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120만 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4월 중순 이후 대부분 자동차 생산공장의 지진 피해는 복구됐으나 부품사들의 피해 복구가 늦어지면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 말 기준으로 도요타와 혼다의 가동률은 50% 수준에 불과하고, 닛산은 40%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도요타자동차 사장 도요다 아키오는 정상수준의 조업은 일러야 11월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상 조업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 포스코 신문(5/19, 제869호)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환율시장

그리스 위기 등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원/달러 1100원 상향 돌파 시도 전망, 다만 쉽지는 않을 듯



<출처:외환은행 홈페이지> 5월 원/달러 환율 추이

6월 원/달러 환율은 QE2 종료와 그리스 채무 위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미달러의 제한적 반등이 예상되고 국내적으로는 외국인투자자와 경상수지상 달러 공급 압력이 크게 줄어들어 따라 5월 중 저항선으로 작용하였던 1100원 상향 돌파 시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원화자산 저가매수에 대한 강한 의지 및 당국의 변동성 관리 등으로 1100원 및 1100원 초반의 저항선 돌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다양한 악재의 부각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의 기반과 기업 실적호조를 기반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 최근의 금융시장 조정을 양적완화 종료 이후에 대한 우려라는 해석도 있지만, 4월 FOMC 회의 이후 시장 반응대로 미국은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 여건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근 위험자산 가격의 조정은 유로존 리스크의 부각 및 경기 둔화 우려, 여기에 기술적 과매수 부담이 보다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월 금융시장 동향은 유로존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수요 감소 우려를 얼마나 떨쳐낼 것인지에 좌우될 것이다.

6월 중 미달러는 6월말로 예정된 QE2 의 종료, EU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실사 이후 그리스에 대한 5차 지원금 지급 문제 등으로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이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원자재 가격 조정으로 물가 및 실질소비 감소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은 달러의 상승을 제한시킬 요인이다. 지난 2년간 외국인의 한국자산 매입이 원화 절상 압력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올해는 주식투자에서 거두고 있는 막대한 이익의 방어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불안정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채권투자는 장기투자기관과 아시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외불안으로 환율 상승시 원화 채권 저가매수 기회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글로벌 달러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6월중 선물환 포지션 한도 인하가 시행될 예정이며, 8 월부터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김치본드에 대한 대책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외환당국의 단기차입금 억제 및 투기적 달러 매도 완화를 목적으로 한 일련의 조치들이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책적 리스크로 인해 원화 매수포지션에 대한 호흡 및 목표를 길고 크게 가져가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6월 중 환율은 제한적 상승 시도가 예상된다. 대외불안정성과 미달러의 반등을 등에 업고 1100 원을 1차 타겟으로 한 상승 시도가 예상되나 외국인의 원화자산(특히 채권) 저가 매수 및 물가 불안고 고려한 당국의 매도개입 가능성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은 1070~1110원 사이 등락이 예상된다. 원/엔 환율은 1350원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1310~1350원 사이 등락이 예상된다. 원/유로 역시 원화의 상대적 강세를 감안해 1560 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1510~1560원의 거래범위를 예상한다.

<여기서 잠깐!!>

뉴스레터 5월호의 환율시장 동향에서는 원화강세 기조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월초 미달러의 약세 흐름과 4월 무역수지 호조 뉴스, 증시의 초강세로 1064.90원(5/2, 장중)으로 연저점을 낮췄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조정과 금통위에서의 예상 밖 금리 동결, 외인 주식 순매도로 1090원대에 재진입하였고, 그리스 부채위기와 맞물려 1100원대 진입하기도 하였다.

출처: 2011.05.26 삼성선물 6월 금리환율 전망 2011.05.26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원자재 시장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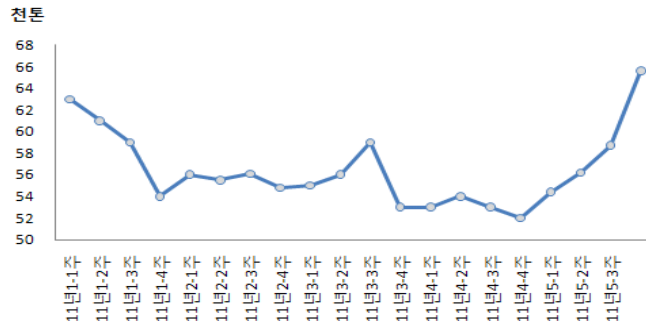
국산 유통용 열연 재고 급증

- 포스코SSC 홍보·현대제철 SSC증가...포스코SSC, 하이밀 수리가 원인

[스틸데일리 06월01일]

SSC의 열연 재고가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대제철 SSC의 재고는 5월초 5만4000톤 수준에서 지난주 말에는 6만6,000톤 정도로 늘어났다. 포스코 판매점들은 국산 열연재고가 홍보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제철 열연SSC의 재고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구매량은 꾸준한 반면 판매가 크게 둔화된 때문이다. 현대제철 판매점들은 5월 들어 30~5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포스코 판매점들은 구매량 감소로 재고 증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지난 5월11일부터 하이밀공장 수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한 것. 판매점들의 하이밀재 비중은 약 50%를 소폭 상회한다. 한 포스코 판매점 관계자는 "포스코재 열연코일 구매량이 전월대비 약 30%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다른 판매점 관계자도 "포스코가 밀어내기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하이밀 수리로 구매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월 5만톤 출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판매점의 재고 증가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열연SSC재고 추이



[냉연] 냉연업계, 가격인상 대실패

- 5월 가격인상분 반영 5만원 내에 불과..6월 추가인상도 어려워

- 연일 대책회의 중이지만 뾰족한 방법없어.. "디테일한 부분에 더 신경써야"

[스틸데일리 05월31일]

냉연사들의 가격인상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업계에 따르면 냉연사들은 월말 마감에 마무리해가거나 완료한 상태이다. 냉연사들은 5월 톤당 16만원의 가격인상을 단행했지만 인상반영 수준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냉연사 각사들의 수요처 확보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5만원 내의 인상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냉연사들은 포스코를 따라 5월 16만원의 가격인상을 발표했지만 시황이 매우 열악하자 5월 8만원, 6월 8만원의 단계적 가격인상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5월 8만원 인상은 커녕 평균 인상폭이 5만원내에 그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냉연재, 도금재, 컬러강판 등 전 품목에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냉연도금재 수요자들은 가격인상폭이 너무 높아 이를 제품가격에 전가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5월 16만원의 공장도 가격인상은 시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어긋난 가격인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6월 추가적인 가격인상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냉연사 관계자는 "5월 16만원 인상으로 출하했지만 실제 마감은 5만원 내외 수준에 그쳤다"며 "할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격인상분 반영이 매우 미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업부서에서 6월달에는 이 정도 수준 반영을 지켜내기가 힘들다고 말할 정도"라며 "6월에 8만원 가격인상분 반영도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냉연사들은 연일 비상대책 회의에 여념이 없다. 회의의 주된 내용은 각 판매부서의 가격반영을 위한 대책 수립이 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은 나오질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1)저가 원자재를 구매하고, 2) 가격인상된 만큼 전가하는 것이지만 두가지 모두 냉연사들이 자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STS] STS스크랩 재고 3개월 연속 증가..구매는 감소

- 국내구매 3만6천톤 16% 감소..수입 3만4천톤

- 4월말 재고 올 들어 최고 1만5천톤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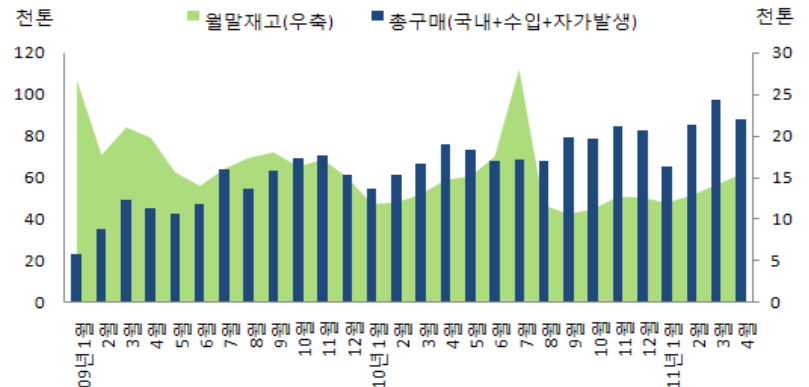
[스틸데일리 06월02일]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들의 스크랩 재고가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4월말 STS스크랩 재고는 1만5,462톤으로 전월대비 9.1% 증가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4.3% 늘어난 것이다.

4월 구매(국내+수입+자가발생)는 8만8,203톤으로 전월대비 9.4% 감소했다. 이 중 국내는 16% 감소한 3만6,358톤, 수입은 3만4,654톤으로 전월대비 8.5% 줄었다.

한편 올해 생산업체들의 STS스크랩 구매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는 포스코 연연속설비 증설로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스테인리스강 용해용 철스크랩 구매 및 월말재고 동향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I

Leaving Hsinta!

-대만, 신마프로젝트를 마치며...

지난 2008년 10월 13일 대만전력공사로부터 받은 Notice of Award로 시작된 Hsinta Project (FGD/ESP/AHS Upgrading for Unit 1&2)의 완료(현재 1호기 Commissioning중)를 앞두고, 지난 세월을 잠시 돌아 보았습니다.

6여년에 걸쳐, 3번의 유찰에 결국 단독입찰을 따낸 어렵사리 체결된 계약은 지난 1990년~1992년 ESP Upgrading 공사 이후, 거의 20년 만에, 가장 오랜 노력, 최대 Project(집진기, FGD, 첫 해외 FGD/Retrofeit/발전소) 및 최대 Risk라는 여러 Title을 달고 시작한 프로젝트로 초반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담당 엔지니어들이 설계, 구매, 시공 업무를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함께 하느라 강행군의 연속이었던 지난 2009년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08. 12. 19. Site Survey (조회)

작년 5월31일 ESP 설치작업 중 추락사고가 있었지만 다행히 그 외주 직원은 회복 및 재활 중에 있습니다. 역시, 모든 현장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건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 계속됩니다.



'08. 11. 11. Kick-off Meeting (DNFPP)

프로젝트의 3대 요소의 우선순위가 '납기>성능>품질'라는 회사의 Mission 띠고, 시작한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20년 전의 고정관념으로 많은 고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년 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때와 비교하면, 대만 특히, 까오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년 전 발전소와 대만전력 직원, 거리풍경, 식당, 먹거리, 인심 등등....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만전력의 일하는 절차, 특히, 대만 법규준수, 서류요구 프로세스와 승인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져 있었습니다. 20년 전보다는 Communication, 경험 등이 개선된 반면, 엄청난 양의 계약서, 제출서류, 사소하게 꼬치꼬치 따지(?)를 거는 감리회사, 대만전력 담당직원, 현장QC, 그리고, 서로를 잘 모르는 내부의 대만직원과 외주업체.....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숙하고, 정다운 사이지만, 초기에는 많은 좌절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09. 8. 14. 착공식 (안전지원제)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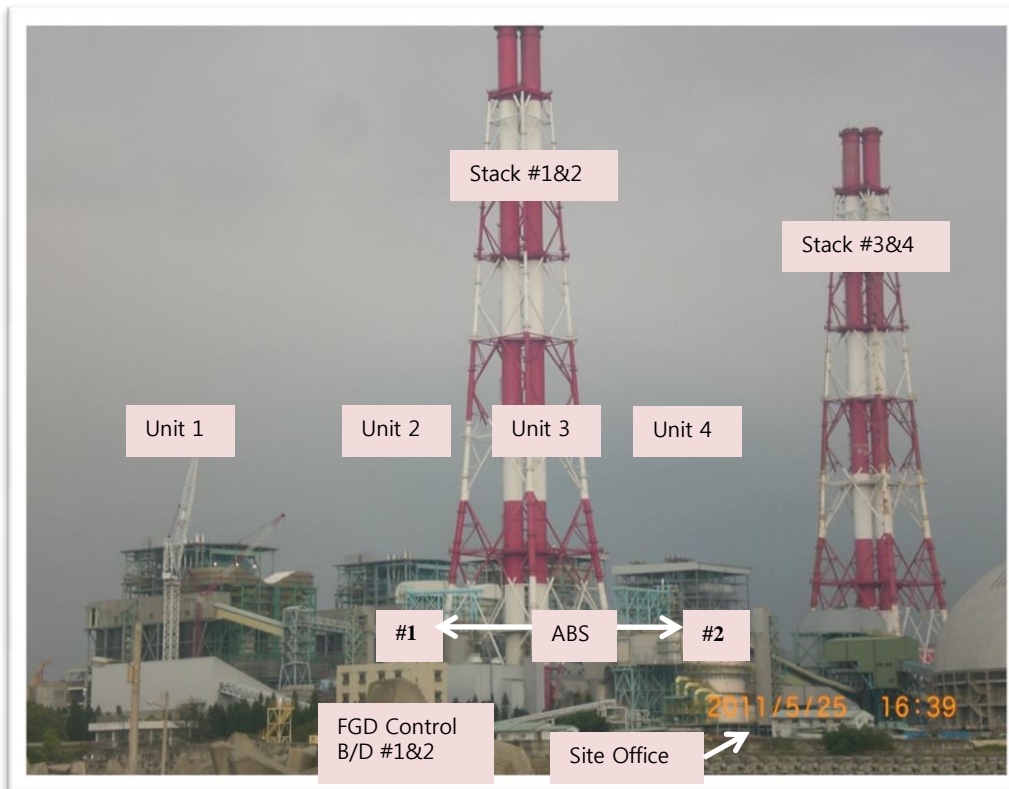
경제 통향

기획특집 I

여러 가지 이유로 3달 반 지연되었던 2호기와는 달리 1호기는 1달여 빠른 일정으로 시공을 마치고, 시운전 준비를 하는 요즘, 마무리를 위한 정산 및 Punch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그간의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그간 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모든 본사 임직원께 대단히 감사함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노래가 떠오르네요. 시커멓게 변한 Hsinta Team들이 한국에 들어가면, 소주 한잔 기울이며, 따뜻한 격려로 맞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관련 사진 다음 장에 계속됩니다.



Hsinta Power Station Overview



▷ ESP Unit1
Before Construction



▷ '11. 5. 31. ESP
Unit 1 Overview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I



▷ 신파프로젝트 역사의 얼굴들^^



'10. 2. 26. 회장님, 부사장님 현장방문



'09. 1. 16. "우리 함께 해요!"
* Project 초기 최대 유행어

KC코트렐/해외사업부 이정준 선임

제3차 ASIA SOLAR ENERGY FORUM 참석 후기

- KC Solar Energy 강태일 상무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II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 3일간 일정으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ia Solar Energy Forum에 참석하였습니다. 저가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국제협력분과를 맡고 있기도 한 때문이지만 무엇보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의 태양광시장을 직접 경험하고 아시아지역에서의 태양광 사업기회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Asia Solar Energy Forum은 2010년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었고, 행사는 아시아 개발은행(ADB)이 주최 하였습니다.

ADB는 향후 3년간 아시아 지역에 3,000MW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보급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전력이 부족한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발전소급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초기 사업개발자금 지원부터 사업예산의 일정부분을 직접 장기, 저리 융자하는 Financing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6월 1일에는 ADB의 장기저리 융자자금의 지원을 통해 태국에서 건설중인 아시아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인 Lopburi Solar Project 현장(사진)을 방문하였습니다. Lopburi Solar Project는 축구장 250개 정도의 광활한 부지에 일본 Sharp사가 개발한 아모포로스 실리콘 박막형 태양전지판을 이용하여 73MW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 11월 1단계 프로젝트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태양광발전소는 전체 완공 후 태국의 5~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 공급하게 됩니다.



▷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서 본 태양광 발전소는 마치 태양전지판의 바다 위에 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Forum에서는 태국 이외에도, 인도, 중국 및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개도국에서 추진되는 이러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개도국은 전력생산기반이 취약하여, 풍부한 원자력 및 석탄 발전 기반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비해 전력생산 단가가 매우 높은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전세계적인 생산시설의 확대로 태양전지의 가격은 최근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문에 이번 Forum에서 2015년이 되면 아시아 개도국의 3분의 1 이상의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단가가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단가와 경쟁력을 갖는 'Grid Pari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ADB는 이번 Forum에서 아시아개도국에서 태양광 발전 보급의 확산을 위해 Regional Task Force를 구성하여 이들 국가에서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대규모 태양광프로젝트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ADB의 적극적인 지원과 Leadership을 바탕으로 향 후 2~3년 이내 아시아지역에서 원전 규모에 해당하는 1GW태양광 발전소가 탄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회사가 태양광사업을 시작한 2005년 말, 태양광 발전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우리사회의 작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 불과 5년 남짓 지난 지금 태양광 발전은 우리 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우리보다 뒤진다고 생각해온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Asia Solar Energy Forum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innesota 정착기

- NOL-TEC 파견근무자, 김재수 선임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Ⅲ

2010년 8월의 미네소타는 아름다운 여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산이 거의 없는 지형에 10,000개가 넘는 호수가 있다는 미네소타는 복잡한 서울과는 달리 어디를 가도 넓게 펼쳐진 공간과 초록과 파란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생활의 터전으로 자리잡은 곳과 사무실은 약 25 마일 (40 km) 떨어진 곳으로, 한국에서는 출퇴근 하기에 너무 먼 거리로 보였지만, 교통 정체가 적은 이곳에서는 40분 거리로 조금 먼 수준의 거리였습니다. 운전 중에는 가끔 사슴과 칠면조 등의 야생 동물을 볼 수 있고, 호숫가를 몇 번 돌아가는 길은 마치 출근이 아닌 여행을 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미네소타는 캐나다와 맞닿은 주로, 미국 내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을 보장(?)하는 지역입니다만, 사람들만 보자면 넉넉한 인심과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들로 한국의 충청도에 비교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Nol-Tec은 넓은 땅만큼 넉넉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KC Cottrell 사무실에서 주어지는 공간의 4배는 족히 될 것 같은 개인 공간이 주어집니다.



서전무님 숙소

Nol-Tec 직원들은 정체불명(?)의 한국 회사에서 온 손님들을 친절히 맞아 주었고, 경계의 마음도 있었지만 이내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자는 공동의 목표를 이해하고 허물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하는 맥주 파티에서 전세계적인 공통점들 - 아내를 공경하자, 세계는 남자가 지배하지만 남자는 아내가 지배한다 등등 을 이야기하며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의 가을은 여름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초록의 나뭇잎들은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고,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겨울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가을을 더 즐기려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Couch Potato 일거라는 선입견을 깨게 해 주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파티도 넉넉한 미국인들의 인심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길고 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뒷장에 계속됩니다.



작은 강과 오래된 다리가 있는 조그만 동네



미네소타 State Fair, 늘 한적한 이 곳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행사



2010년 10월초 Nol-Tec 인수 이후 첫 방문



아름다운 미네소타의 가을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Ⅲ

금새 깨끗해 진 도로▷
-치우는 기술도 수준급!



하루 세워둔 차



얼음낚시와 맥주한잔



바깥은 영하 15도를 내려가도 내부는 나름 아늑한 텐트

미네소타에 첫 눈이 온 것은 11월 초였습니다. 첫 눈은 30 cm 가량 왔고, 첫 눈이 녹은 것은 겨울이 거의 다 지난 5개월은 더 뒤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뉴스에 나온 미식축구장 지붕이 무너진 곳이 미네소타였습니다. 해는 점점 짧아져서 오후 4시면 캄캄해지고, 아침 8시가 넘어서야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별보고 출근해서 저녁별보고 퇴근하는 - 야근이 아님에도!!! - 긴 겨울을 보내면서 생존을 위해 무언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였습니다. 급기야, 서전무님과 저는 사람을 찾아 한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겨울 미네소타의 기온은 -30 oC 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지만 길고 긴 겨울을 나는 미네소타 사람들은 여유로웠습니다. 호수의 얼음은 1m 가 넘게 두꺼워져서 대형 SUV들이 호수 위를 돌아다니고, 제트스키를 타고, 얼음 낚시를 하며 겨울을 즐기는 것을 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얼음 낚시는 한국의 그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의 강태공이 얼음 구멍에 낚시를 드리우고 세월을 낚는 것과 달리, 미국의 강태공들은 어군 탐지기와 수중 카메라를 동원하여 물고기들을 추적하며 적극적으로 낚시하는 것이 마치 사냥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은 전세계적으로도 춥고 긴 겨울이었습니다만, 미네소타의 겨울은 4월말까지 눈이 날리고, 3m 이상 내린 눈이 녹지 않는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긴 기다림 후에 맞이한 봄은, 그만큼 감사한 변화였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잔디는 눈이 녹아 없어지자 일주일도 못되어 파랗게 돌아나고, 6개월간 냉동 보관(?) 중이던 나무의 눈들은 연한 녹색의 나뭇잎들을 뿜어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월 ~ 3월이면 볼 수 있는 변화가 5월에서야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긴 겨울을 이겨내었다는 안도감과 다가올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을 감사히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서 전무님께서 올 여름이면 다시 본사 복귀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서 전무님께서 2011년 한국의 겨울을 지내시면서 몇몇 분들과는 미네소타의 겨울을 무용담처럼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마도, 저는 몇 번의 미네소타 겨울을 더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미네소타의 봄, 여름, 가을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개월이 미네소타에서 그리고 새로이 식구가 된 NOL-TEC 과의 적응기였다면, 몇 년 후에는 미네소타의 성공기를 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때는 미네소타의 겨울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